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이끄는 스님들

강원 설립 '눈앞' ... 강한 추진력 갖춰

지난해 12월 송덕 스님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1천여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포교와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도 태고종 내에서는 제 목소리 내기를 자제했던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태고종의 스님수는 7천여 명 정도다. 이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1천여 명이 비구니 스님들이다. 수나 역할에 비해 비구니 스님들이 상대적인 소외를 받아왔다. 이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친목모임 형태로 운영되던 연화비구니회를 모태로 1998년 10월 50여 스님이 모인 가운데 창립했다. 태고종이 종단으로 정식 등극한 지 30여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창립 후에도 지역조직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이렇다할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3대 회장 송덕 스님을 비롯한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활기를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송덕 스님을 위산한 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조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3월 31일 울산 보덕사에서 열린 간담회.

3기 회장단 출범 4개월 ... 지역조직 틀 세우기 한창

회장 송덕 스님, '엄격한 선배'로 1천 회원 단결 견인

순경 개강을 목표로 학인을 모집 중이다. 3월 31일에는 송덕 스님과 수석 부회장 보현 스님, 부회장 진법 스님 등 집행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40여 스님들이 보덕사 강원시설을 둘러보는 등 개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출범 4개월만에 비구니강원 설립과 지역조직 결성 등을 이뤄내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강한 추진력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집행부를 맡고 있는 스님들이 보여준 탄탄한 활동이 큰 힘이 됐다.

회장 송덕 스님(울진 관음사)은 울진 수지읍에 자리를 잡고 1980년 관음사를 창건, 25년 동안 포교에 매진해 왔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엄격한 선배'로 정평이 난 스님이다. 또 강한 추진력을 갖춰 전(前) 회장 운정 스님에 이어 비구니의 단결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송덕 스님은 취임 후 화합에 최우선을 두고 비구니 위상 강화와 교육체계 확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부회장단을 대표하는 수석 부회장 보현 스님(의왕 계명정사)은 집행부 구성을 비롯해 사업계획 마련 등을 주도한 실무형 전문가다. 평소 인의를 중요시하고 격의가 없어 회원들의 신망이 두둑하다. 태고종 경기 남부교구 총무원에서도 실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회장인 진법 스님(인천 법호암)과 자심 스님(파주 광범사)이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 진법 스님은 인천교구 총무원장으로, 자심 스님은 경기북부교구 비구니들을 이끌어 전국비구니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질적인 전국비구니회 관련 총무행정과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부장 정원 스님(파주 상락원)은 지역모임 결성과 비구니명부 작성 등 조직 강화의 책임을 맡았다. 또한 전국비구니회관 건립불사의 책임도 맡고 있다. 교무부장 진원 스님(양평 송학사)은 비구니강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기북부교구 재무국장인 법조 스님(연천 능해사)과 정휴 스님(서울 선이정사)은 감사를 맡고 있는데, 법조 스님은 연천 능해사를 창건해 포교와 사회복지활동에 매진하는 등 지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하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지역모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책임자를 두고 있다.

서울의 묘연(약사암), 부산 현암(정수사), 강원 경해(해인사), 경기남부 성원(이천 무량사), 경

젊은 스님들 지역모임 주도

기북부 도운(파주 영천사), 전남 무성(불광사), 전북 지명(군산 지장사), 충북 송담(진천 만성사) 스님 등이 지역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젊고 활동적인 스님들로 비구니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비구니회의 전신인 연화비구니회를 이끌었던 재선 스님(서울 봉원사)과 제1,2대 회장을 지낸 운정 스님(영월 계룡사)이 전국비구니회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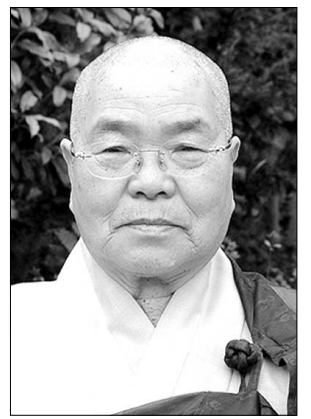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1> 지원 스님

'정진·불사' 후학들에 귀감

"세상사 일체가 다 부처님 법인데, 무얼 따로 얘기할까?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 아무것도 괴로울 게 없는 세상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옆으로 고즈넉이 자리잡은 부산 동래구 보림사. 그곳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인 지원(74·사진)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스님이 주석하는 보림사의 불사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스님은 지난 15년 동안,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종합 수행공간인 경주 금련사 불사에 전념해왔다. 경주 동국대 학인 비구니 스님들의 기숙사이자, 노스님들의 보양처가 되고 있는 금련사는 총 4천 평 규모로 문수동(기숙사), 보현동(노스님 보양처), 달마동(선방), 비로동(법당), 공양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금련



스승이었던 지성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결코 화내는 법이 없었고 모든 것을 포용했던 자애로운 스님으로 기억되는 지성 스님처럼 지원 스님 역시 살고 싶은 것, 배울 것,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찍 은사를 여의고 지원 스님을 스승처럼 모시고 있는 조카상좌 상화 스님은 "말씀은 별로 없으시지만 반듯하게 사시는 모습 자체가 많은 가르침을 준다"며 "허공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모든 게 인과법에 의해 돌아가니 자기 양심에 적합하게 살면 된다"는 스님 말씀을 늘 경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1회 졸업생인 지원 스님은 "그때가 가장 좋았어. 임제승 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와서 50여 명의 대중들과 함께 배웠는데 낮에는 풀 베고, 밤에는 산불 감시하느라 몸은 고달팠지만 기쁨수호하고 공부하는 즐거움이 힘든 줄 몰랐지"라며 예전의 학인 때를 회상했다.

53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림사에 머물며 새벽예불, 주력, 참선, 독경을 빠뜨리지 않으며 말로서 가르치기보다는 행(行)으로 사표가 되는 스님은 상좌들에게 엄격한 스승이다.

"몸의 안일을 구하거나 명예를 위해 출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 좀 더 부지런해야지. 속가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요즘 힘들다고 야단들이지만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좀 더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천미희 기자

경주에 비구니 수행도량 금련사 불사 15년 정성

사 건립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스님은 사재까지 털어 가며 후학들을 위한 도량 건립에 혼신을 기울여 지난해에 불사를 마쳤다.

15년에 걸쳐 금련사 불사를 마치고서야 비로소 보림사 대웅전 불사를 시작할 엄두를 낼 정도로 온 마음을 기울여왔으면서도 스님은 끝끝내 한 것이 없다고 손을 내젓는다.

33년 전 부산 비구니 금련회 창립의 기틀을 다지고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한 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힘을 모아 나갔다. 금련회는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화엄회 결성의 모태가 되어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지원 스님은 스님이었던 고모를 따라 자연스럽게 불연(佛緣) 스 맺었고 출가로까지 이어졌다. 스님이 출가를 하면서 스님 집안에선 4대째 비구니 스님이 배출되었다. 스님은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니계를 받았지만 고모이자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회대외경제자성광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 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5-7555**

탈종공고

- ◇ 사찰명: 무상사 ◇ 주소: 경기 양평군 양동면 석곡1리 296번지 ◇ 법명: 무상스님(속명: 이상운)
- ◇ 사찰명: 무량사 ◇ 주소: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 법명: 무량스님(속명: 김명자)
- ◇ 사찰명: 변원선원 ◇ 주소: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선리 59 ◇ 법명: 지우스님(속명: 한창호)
- ◇ 사찰명: 대국사 ◇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3번지 ◇ 법명: 월산스님(속명: 안금자)
- ◇ 사찰명: 약수암 ◇ 주소: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 법명: 여래스님(속명: 정성자)
- ◇ 사찰명: 보명사 ◇ 주소: 서울 양천구 목4동 732-24호 ◇ 법명: 법천스님(속명: 김진웅)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